

■ 초등생 논술 잘 하려면

글쓰기보다 토론하는 법 먼저 길러라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 서 논술과서 반영비율을 늘리기로 해 논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이미 광주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시간에 논술 수업을 운영 중이며, 조만간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생 논술교육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다.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논술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문이나 일기 등 글쓰기에서 보이는 재주가 논술 실력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사고이므로 형식에 맞춰 글쓰기를 훈련시키는 주입식 교육은 제 효과를 내기 힘들다. 논술에는 정답이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통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논술의 핵심이다.

광주교대 국어과 임성규 교수는 "초등학교 때년부터 논술을 가르쳤다면 글쓰기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생들은 어떻게 해야 논술을 잘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독서는 기본=입 교수는 "논술은 고도의 지식과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언급되고 있는 통합논술의 경우 거의 모든 과목을 아우르는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만 자기만의 글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많이 알아야만 좋은 논술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생이 논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독서를 하는 것이다. 발달과정에 맞는 꾸준한 독서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독서가 전부는 아니다. 독서 후 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등을 알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나 부모의 역할이다.

주입식 글쓰기 훈련 탈피

꾸준한 독서 습관 만들고

논리적인 사고력 키워야

▲논리적인 사고=주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 강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답을 쓰라'는 식이다. 이는 평소 논리적인 사고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일이 필요한 이유다.

한가지 사실을 놓고 이에 대해 여러 가능한 추론들을 상상한 뒤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다. 거꾸로 논술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토론은 논리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

글쓰기는 이후에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글쓰는 일이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닌 만큼 아이들이 '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면서 가르쳐라=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부모들은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 독서를 마친 아이에게 "재미있었어?"라는 단순한 질문 보다는 "주인공의 성격은 어땠어?", "너와는 어떻게 다르지?", "만약 주인공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책 뿐 아니라 만화나 TV를 본 뒤에도 이런 식의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이가 뉴스를 통해 절도 사건을 접했다고 가정하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가해자의 부모는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경찰들은 왜 애였을까 등 다양한 대화의 소재를 만들어본다. 만약 부모 없이 자란 어린이가 벌인 사건이라면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거듭되는 대화를 통해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논술 관련 책 잇따라 출간

초·중·고교 학생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판사들도 논술 관련 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고전과 현대문학을 망라한 전집류를 비롯해 논술 답안 작성이나 사고력, 창의력 향상을 위한 지침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위너스초이스 출판사는 최근 100권을 목표로 한 '논술네비게이션' 시리즈 1차분 10권을 발간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권장하는 책 중 100권을 엄선해 고전의 축약과 요약은 물론, 작품의 배경이나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도 함께 실고 있다.

도서출판 열림원은 한국 문학작품을 엮은 '논술한국문학' 1차분 6권을 냈다. 현직 중·고교 국어교사들이 작품을 선별하고 해설을 붙이고 논술 문제도 실었다. 민음사, 창비, 문학과지성사 등 구체적인 인문출판사들도 논술을 겨냥해 각각 '세계문학전집', '20세기 한국소설', '한국문학전집' 등 전집류를 내놓고 있다.

웅진씽크빅의 교양 인문·과학 브랜드인 프로네시스는 '조종철 교수와 함께 열정적 고전읽기' 시리즈 10권 중 3권을 출간했다. 철학·예술·사회·역사·과학 등 60권에 가까운 다양한 분야의 고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꼭 고민해봐야 할 쟁점을 망라했다.

'아빠가 들려주는 교양' (전 4권·이지복 펴냄) 시리즈는 생활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통합논술에 유리한 '전이적 사고 방식'을 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리즈는 논술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8개의 주제를 인간·관계·감정·세상 등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논술 대비 지침서로는 '논술과 철학 강의'(김종욱 지음·전 2권·통나무 펴냄), '논술의 끝'(김남수 지음·한인 펴냄), '통합논술 총자료집'(오양심 지음·신지원 펴냄), '민사고 논술'(지광현 지음·민사고 펴냄),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논술'(로고스교육연구회 지음·살림 펴냄) 등이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아빠가 들려주는 교양'



'논술한국문학'



'논술 네비게이션' 시리즈



광주 금당초등학교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영화안내 Happy Time

메가박스 Megabox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건물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치 대지 매도가 협의결정

대인동삼일부동산

일가공인중개사

LCE타워(주)

21세기부동산건설(주)

현대공인중개사